목포 북항선착장 곳곳에 인화물질…대형화재 위험

1·2부두 개인용 철재함 100여개에 해상용 면세유 보관
화재땐 대형사고 불보듯…미관 해치고 주차난 '부채질'

지난 22일 목포 북항선착장 제1부두 앞에 설치된 철재 보관함 100여개가 흉물스럽게 놓여있다. 이 보관함 상당수에는 인화물질인 해상용 면세유가 안전장치도 없이 보관돼 있어 대형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목포 북항선착장 곳곳에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철재구조물이 방치돼 대형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어민들에 따르면 차량과 이용객들이 수시로 오가는 목포 북항선착장 제1부두와 제2부두에 용도가 불분명한 철재 박스 100여개가 각각 설치돼 있다.

이 철재 박스는 목포북항어촌계 소속 어민들의 개인 선박용품 보관함이었다. 보관물품 목록은 선박에 사용하는 용품과 낚시용 미끼 등이다.

하지만 이 보관함 상당수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인화성 연료인 해상용 면세유가 가득 담긴 20ℓ들이 용기가 들어있었다.

이 보관함들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탓에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소형어선을 북항에 계류하는 한 어민은 "수협이 어촌계 편의를 위해 제작비용을 들여 선착장에 보관함을 설치해주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선구 보관용 개인 사물함에 면세유를 보관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휘발성이 높은 연료통을 안전설비도 갖추지 않은 보관함에 둔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을 넘어 사고 유발 행위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어민들이 철재 보관함에 면세유를 보관하는 이유는 도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 안에 면세유를 보관하다 도난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이들 보관함이 설치되면서 북항을 이용하는 차량과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하의도행 철부선 출항을 기다리던 한 승객은 "북항선착장은 주차공간이 비좁아 혼잡한데 철재 보관함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미관상으로도 넘어진 냉장고로 착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화물질이 담겨있는 이 보관함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관함 주변에는 소화전은 물론이고 휴대용 소화기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다. 항만관리를 담당하는 목포해양수산청은 이 같은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이들 보관함은 목포수협이 북항 어촌계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항만 내 설치 인가를 받아 제1부두와 2부두에 각각 설치했다"며 "그동안 어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스티로폼 박스가 사용 후 쓰레기가 돼 선착장과 인근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 많아지자 이 보관함 설치를 허가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상용 면세유를 보관함에 두어서는 안 된다"며 "목포수협과 북항 어촌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해남군,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선정…관광산업 100억 투입

2021년부터 3년간 땅끝·고산 유적지 연계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해남군이 내년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남도가 주관하는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로 전남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군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 각 시·군에서 총 15건의 사업 신청서가 접수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4건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해남군은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라는 주제로 해남의 대표 관광지인 땅끝과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연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점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사업신청서에 담았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도비 5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땅끝권역과 해남읍권역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관광자원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땅끝권역에는 황토나라테마촌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 비대면·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땅끝해남의 해양 자원을 걷기 여행과 연계해 전남도 블루투어의 거점 코스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남읍권역에는 연동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방과 카페 등을 조성하고 해남미소 상품을 전시·판매해 지역 생산 농수산물 판매에도 힘쓸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남군의 관광객 400만명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 블루투어의 성공적 추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필요한 예산 말하세요"…무안군, 주민참여예산 접수

31일까지…군민 누구나 제안 가능
김산 군수 "생활밀착형사업 적극 반영"

무안군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지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접수를 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경쟁력 확보 등 주민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사업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다.

농로포장 공사와 같은 소규모 숙원사업과 반복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지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안군민이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수 있고 신청은 무안군 홈페이지 에서 받고 있으며, 읍·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관공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망운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해제면 주민자치센터 이불빨래방 운영, 마을그림지도 사업 등 33건의 안건이 반영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무안군 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적극 반영돼 공동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코로나19 방역·해양쓰레기 수거에 써달라"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회장, 목포시에 위문품 전달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회장이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해양쓰레기 수거업무에 총력을 다하는 목포시 직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사진〉

이 회장은 빵과 우유 각각 1000개씩을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직접 전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영산강 상류지역에 밀려든 해양쓰레기 수거에 휴일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는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2019년도 해수부가 선정한 고객만족평가 종합 우수선사다. 목포~제주 항로 대형 크루즈 카페리 2척과 화물선, 해남우수영~제주 항로 쾌속선을 운영 중이다.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2만7000t 규모의 대형 크루즈 카페리를 새로 건조해 9월 중 취항 예정이다. 호주(INCAT사)에서도 3500t 쾌속 카페리를 건조 중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새얼굴

"공정하고 책임있는 법 집행 최우선"

박인배 목포경찰서장

"기본에 충실하면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제70대 목포경찰서장에 취임한 박인배 총경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재난 대비, 각종 사건 처리 수행 등으로 경찰관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외부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꿋꿋하고 당당한 목포경찰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영암 출신인 박 신임 서장은 목포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위 공채(간부후보생) 제40회로 입직해 영암경찰서장, 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